

#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표출된 중국민족주의 연구

임 규 섭

경희대학교 연구교수

##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스포츠와 정치, 민족주의   | 참고문헌     |
| III. 중국민족주의 내용 및 특징 | Abstract |
| IV. 베이징올림픽의 정치적 함의  |          |

Key words(중심용어): 베이징올림픽(Beijing Olympic), 중국민족주의(Chinese nationalism), 애국주의(patriotism),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중화주의(Sinocentrism)

## 국 문 요 약

중국은 스포츠와 정치가 불가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스포츠 정책은 국가의 정치적 상황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스포츠체제를 형성하고 있어서 중앙 지배적 조직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정부의 국가이데올로기 운용 하에서 베이징올림픽과 중국민족주의 발전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국민족주의를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요 변수로 보며, 베이징올림픽이 중국민족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도 분석한다. 특히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후해서 중국민족주의 내용 및 그 성격이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중국민족주의는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는 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자신감과 서구세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신감과 응집력을 강화하였고, 중국 역사 속에 깊이 묻혀있던 강국의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정부는 국가민족주의를 기본 틀로 하여 문화민족주의를 최대한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중국민족주의는 그 내용 및 형태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중국민족주의의 핵심이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국가를 구할 수 있을까?” 에서 현재는 “어떻게 하면 중국이 세계의 영도적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이징올림픽과 중국민족주의는 상호 변증적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였다.

## I. 서론

역사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와 정치시스템에 대한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서 스포츠를 장려하고 강조하였다. 특히 세계 강대국들과 겨룬 스포츠 시합의 승리를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었고, 다민족 사회에서는 민족을 초월할 수 있는 국가 통합을 이루게 하였다. 그럼으로 개발도상국인 중국 역시도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중요시하고 잘 활용하고 있다.<sup>1)</sup> 즉 중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스포츠와 정치가 불가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스포츠 정책은 국가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sup>2)</sup> 중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스포츠체제를 형성하고 있어서 중앙 지배적 조직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중스포츠 정책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는 문화의 중심에 서서 국민통합과 국위선양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문분야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7월 13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 중국은 2008년 제 29회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였으며, 마침내 2008년 8월 8일 부터 3주간의 성공적 개최와 열띤 올림픽시합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하는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사실상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상을 하고 있는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를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이루려 노력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성공적 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 지위 및 국가 이미지를 향상 시키고 전 국민을 단결시켜서 정권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했다. 즉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통치의 정당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제로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시합은 정치적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통합과 체제강화를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수단이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개최국의 경제개발이나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시합은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실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적 효과는 상호 밀접하게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

본 논문은 스포츠, 올림픽과 정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베이징올림픽과 중국민족주의 발전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중국민족주의를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요 변수로 삼으며, 또한 베이징올림픽이 중국민족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도 함께 분석해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스포츠와 정치와의 관계, 즉 스포츠의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고 스포츠 시합에서 나타는 민족주의와 그 역할을 분석한다. 둘째는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살펴

\* 본 연구는 2008시민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2008년 6월 27일)에서 발표된 논문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였음.

1) 조문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슬로건의 중화민족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 31호, 2007, p.130-131.

2) 중국의 대중스포츠 정책도 1949년 건국 이후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및 개혁개방 등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였다.

보고 그 속에 존재하는 민족주의 역할 및 중국정부의 권위와 정당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특히 중국정부의 국가이데올로기 운용 하에서 베이징올림픽과 민족주의 관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베이징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전·후해서 중국민족주의 형식이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중국의 부상 및 강대국화로 나타난 강력한 중국민족주의는 중국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뿐 아니라,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에도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중국민족주의는 형태 및 성격의 전환을 가져왔는가? 또한 자국 중심적이고 배타적 성향이 강한 민족주의로 대외 지향적이고 공격적 성향이 강한 민족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는가? 를 함께 살펴본다.

## II. 스포츠와 정치, 민족주의

### 1. 스포츠와 민족주의

#### (1) 스포츠와 정치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외형상 대중문화의 한 형태로서 ‘비정치적 형식’을 띠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독특한 정치적 상징성으로 인해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럼으로 스포츠는 현대의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불가결한 요소로서, 정치적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전달되는 정치적 언어에 수반되는 책임은 공식적인 정치영역보다 훨씬 자유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3)</sup>

스포츠는 사회 정서적 기능, 사회화의 기능, 통합의 기능, 정치적 기능 및 사회이동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중 국가적 수준에서 사회화와 통합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이라 한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자기 국가의 스포츠 팀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이유로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도 하며, 경기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지위도 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럼으로 스포츠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지위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sup>4)</sup>

실제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국제경기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가져오고,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화해와 대화의 촉매제인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국제 스포츠는 때로는 협력과 이해보다는 ‘항변의 수단’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sup>5)</sup> 즉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는 국가의 정치

3) 양순창, "중국 스포츠 외교의 전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한정치학회보』, 14집 3호, 2007, p.323-325.

4) 오일환 전병곤,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의 의미와 전망", 서울: 『중국학연구』 제21집, 2001, p.369; Nation A., "Sport and Politics", in J.W. Loy & G.S. Kenyon(eds), *Sport,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Macmillan), 1969.

5) 강효민, "스포츠와 내셔널리즘: 월드컵축구경기에서의 한일 네티즌의 사례", 서울: 『한국스포츠사회학지회』, 제 21권 제1호, 2008, p.98; Nixon, H. L. & Frey, J.H., *A Sociology of Sport*, (Baltimore,

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의 관점에서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의 ‘정치화’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올림픽 경기의 승리를 통해서 ‘국가의 명예’를 높이고, 둘째는 올림픽 개최를 이용하여 자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선전하며, 셋째는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넷째는 국내·외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 대신 경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올림픽이 정치화된다.<sup>6)</sup>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인은 ‘민족주의’의 심화를 들기도 한다. 즉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연주, 국기게양, 메달 성적 발표 및 단체경기 등을 통해서 민족주의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며, 올림픽 경기에서의 승리는 국가의 정치적, 이념적 승리와 동일시된다. 또한 국제정치에서 올림픽은 국력의 과시 및 외교적 도구나 항의수단, 이념과 체제선전의 수단, 갈등 및 전쟁의 촉매제 등으로도 이용된다.<sup>7)</sup>

스포츠는 정치권력이 선전, 교화(教化), 양성, 집합, 응집의 기능을 이용하여 사회 대중을 인도하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이데올로기는 스포츠 시합이 대중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입, 교화, 형상화 등 체육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서 이데올로기 혹은 가치관을 선양(宣揚)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의 지위와 명예도 향상시킨다. 이러한 스포츠 문화 활동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감화(感化)되어 국가의 정치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긍정적 사유, 가치, 행위 및 의식을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정부의 관료조직은 스포츠를 국가의 의지를 주입하고 사회의 주체세력을 형성하는 문화방식의 하나로 선택하여, 일체의 행정적 요구에 따라서 국가의 정치목적과 국가의지를 공동으로 실현한다.<sup>8)</sup>

## (2) 올림픽과 정치

1896부터 시작한 현대 올림픽은 ‘민족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 스포츠 시합이며, 선수와 선수는 국가 혹은 국가상징물을 걸고 국가 간의 관계를 승인하는 선례를 수립하였다. 개막식의 공연은 개최국의 ‘문화 표현’이며 각 국가 대표단 입장 시 국기를 휘날리고 시상식 때 우승선수의 국가(國歌)를 방송하는 행위 및 각국 메달 통계 등 모두 올림픽이 민족주의 색채로 충만하게 하였다.<sup>9)</sup> 올림픽은 각 국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연출하여 만들어낸 국제무대로서, 각 국가는 올림픽 경기시합의 결과로서 ‘자신감’을 표현하며, 주최국은 국제적인 올림픽 연출을 통해서 자국의 명성을 날리고 국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다.

“전장(戰場)밖에서는 올림픽이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민족주의’ 포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스포츠만큼 더 많은 기대를 받는 것도 없지만, 스포츠에서 만큼 그런 기대가 더 두드러지게 무너지는 곳도 없다”는 말이 있다.<sup>10)</sup> 다시 말해, 올림픽경기의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6.

6) 오일환 전병곤, 앞의 책, p.369; W. M. Leonard II,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s*, (N.Y.: Macmillan Co.), 1989, p.374-375.

7) 박정근, 문익수, 전진호, 『현대사회와 스포츠』, 서울: 21세기 교육사, 1999, p.67-68.

8) 葉韋君, 『從雅典到北京: 2008年北京奧運文化理念分析』, 타이베이: 國立政治大學東亞研究所 석사논문, 2004, p.7; Nixon, 2000, p.411.

9) 위의 책, p.25.

정치적 이용에 대한 인식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올림픽은 선수들이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성(nationality)이란 내재적인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내재성이 스포츠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적 위세와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초강대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올림픽유치가 국제정치 및 경제적으로 자국의 능력을 과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올림픽을 국제적 안정, 정통성 확립 및 권위 강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중국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국제적 정치, 경제, 문화 및 스포츠 영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노력하였다.

올림픽에 미치는 많은 정치요인 중 민족주의는 가장 강하게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친다. 민족 국가를 기본 참여단위로 하는 국제적 경기장(競技場)에서 민족주의는 항상 커다란 호소력과 감화력을 보이며, 민족주의와 운동선수는 서로 지탱하고 상호 영향을 주며 ‘공동체 관계’를 형성한다. 올림픽 경기 중 사람들은 국가 간 ‘대결의 승리’를 호소하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참여를 통해서 보이는 조국에 대한 정감 및 각 국의 운동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이룬 우수한 성적의 결과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올림픽 경기에서 보인 운동선수들의 태도 및 결과는 반드시 ‘국가’ 및 ‘민족’의 이미지와 함께 연결 지어 진다. 올림픽은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만들어낸 국제무대로서, 각 국의 국력과 민족주의를 표현하고 자국의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운동선수들은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자국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대상이 된다.

### (3) 스포츠와 민족주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는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지고 민족주의가 사라지는 듯 묘사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민족주의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특히 대형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와 민족주의의 관계는 민족의 ‘내적 요인’뿐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사실상 민족은 내적인 ‘동질성’ 보다는 민족외부와의 ‘차이성’에 따라 정의되는 공동체적 감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민족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관념적 공동체라고 볼 때, 이 타자와 연관된 민족주의적 요인과 맥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제 정치, 경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sup>11)</sup>

세계화 시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민족주의는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세계화 동인은 민족 정체성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스포츠와 민족주의의 연결 고리를 약화시킨다고 생각되지만, 세계화 과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민족 정체성, 그리고 민족주의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남아 있다”<sup>12)</sup>고 주장한다.

10) 양순창, 앞의 책, p.328.

11) 김방출, “스포츠 민족주의 재인식: 전지구화, 스포츠, 기업 민족주의”, 서울: 『체육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7, p.78, 81.

12) 위의 책, p.77.

어떤 사회적 행위 및 실천과 비교해서 스포츠보다 더 강렬하고 대중적인 민족주의적 의미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수단은 없다. 그럼으로 민족, 민족 정체성 및 민족주의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보존하는 사회제도로서 스포츠를 이해하기도 한다. 즉 스포츠와 민족, 민족주의, 민족 정체성의 관계는 앤더슨(Anderson)이 현대의 민족은 인류가 의도적으로 창조해낸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형용했듯이,<sup>13)</sup> 상당 부분은 상상되어지고 만들어졌지만 쉽게 약화되거나 혹은 허물어지는 관계는 아니다.<sup>14)</sup>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는 민족주의는 국제스포츠와는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이다. 실제로 스포츠에 내재된 민족주의의 목적은 다른 나라사람들과 국민을 구별하기 위한 노력이며, 민족주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다른 국가의 시민들 간에 절대적인 분리를 확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더 높은 경쟁 수준에서 스포츠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중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장면(場面)이 되며 일반 문화적 공동요소로 확대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국제 스포츠의 참가선 수단을 국가와 민족의 상징물로 동일화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국가나 민족주의자들은 자국민의 단결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였다.<sup>15)</sup> 사실상, 각 국가의 통치자 혹은 권력집단은 스포츠와 민족주의 및 민족정체성과의 공고한 관계는 자신들의 권력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도 이러한 관점 및 목적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하여 준비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자신들의 최종 목적을 달성했다.

### Ⅲ. 중국민족주의 내용 및 특징

민족주의 개념도 다른 사회과학연구와 같아서 하나의 절대적인 전범(典範)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 별 혹은 역사적 상황의 상이(相異)로 다른 형태의 해석·분석 방법이 산출될 것이다. 때문에 중국민족주의의 내용 및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맥락 및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냉전 이후 흥기한 중국민족주의가 국내·외의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배경 및 함의(含意)를 분석하여야, 중국민족주의가 정책적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족주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현대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족주의는 '문화'와 '정치' 두 종의 대립적인 특성이 있으며, 때로는 아래에서 위로의 일어나는 문화와 전통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에서 아래로의 통치엘리트들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민족주의 발전 모델은 비록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민족주의와 '민족국가 성립'과의 상호작용 관계는 모두 민족주의를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

13)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想像의共同體: 民族主義의起源與散布』(吳叡人 역), 타이베이: 時報출판사, 1999, p.2.

14) 김방출, 앞의 책, p.77-78.

15) 강효민, 앞의 책, p.98.

호작용은 서로 다른 형태의 민족국가 통합 및 국가건립과의 관계를 생성시키기 때문이다.<sup>16)</sup> 중국민족주의 발전과 민족국가 건립과의 상호작용을 깊이 파악하고, 중국민족주의가 흥기하게 된 원인, 형성 배경 및 그 내용을 깊이 분석하여야만 중국민족주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 1. 중국민족주의 형성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情愫)는 중국역사를 추진하는 커다란 동력원으로서 존재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민족적 정감(情感)이 생기게 된 주요 요인은 1840년대 이래 서구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치욕의 역사적 경험으로서, 중국민족주의는 ‘정상국가’를 만들고 외래침략에 대항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필요 상황에 순응하여 출현한 ‘인위적 산물’인 중국민족주의는 그 기원과 내용 모두 대부분 정치에 복종 혹은 순종하며 발전해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실상, 중국민족주의의 탄생은 상당히 상상(想像)적이고 창조(創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근대이후 건립한 중국의 각 시기 정권은 모두 국가체제의 정의 및 민족주의 내용을 끊임 없이 수정하면서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형성하였다.<sup>17)</sup>

중국의 지도자들은 ‘진실’과 ‘상상’ 두 가지 방식으로 중국이 다른 국가에게 받은 굴욕(屈辱)적인 역사를 묘사했으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민중들로 하여금 치욕(恥辱)의 역사를 조성한 국가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중국인은 이런 치욕감을 준 국가들을 공격하고 모욕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은 치욕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즉 중국인의 국가에 대한 정서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심리적 측면의 고려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sup>18)</sup> 중국의 백여 년간의 반제국주의 정서도 이러한 잠재의식 하에서 생산되었으며, 외부세계 국가 특히 서구 강대국에 의해 형성된 굴욕의 역사적 정서가 강력한 동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유구한 문화적 우월감과 외부세계와의 상호교류 결핍으로 인해 형성된 현재와 과거 간의 ‘심리적 격차’가 극히 대조를 이룬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가 신중국(新中國)이 건국된 이후 점점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관방민족주의’의 선동 및 정치사회화로 인해 그러한 가치(價値)는 전수 계승되어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중국 건국 이후에도 중국공산당 지도자 및 중국정부는 항상 중국인의 ‘민족정서’를 자극하는 수단으로 정치 및 경제적 목적을 이루었으며, 그 조직의 역량을 운용하여 민족정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등 통제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때문에 중국정부가 창조 발전시킨 민족주의는 중국의 정치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줄곧 담당해왔다.<sup>19)</sup> 사실상 중국에서 민족주의

16) 李英明, 『中國: 向鄧後時代轉折』, 타이베이: 生智출판사, 1999, p.58-66.

17) John Fitzgerald, "The Nationless State: The Search for Nation in Modern Chinese Nationalism", in Jonathan Unger, *Chinese Nationalism*, (N.Y.: M.E. Sharpe), 1996, p.90.

18) Lucian W. Pye, *The Spirit of Chinese Politics, New Edition*,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71-73.

19) Peter Hays Gries,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46.

흥기(興起)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시기가 있다. 1919년 5.4운동시기와 1989년 6.4천안문 사건이 후 1990년대 출현한 민족주의이다. 이 두 시기에 발생한 민족주의는 흥기의 원인과 중국의 전통 문화를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 두 시기의 특징을 비교하면:

첫째는 중국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 5.4시기에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억압에 직면한 중국인은 단지 자신들의 경제적 낙후를 처절하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중국 전통 정치제도의 부패와 유교문화 체계의 무능함으로 인해 중국을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깊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민족주의 고조(高潮)의 원인은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과를 이루었고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미국을 필두(筆頭)로 하는 서방세계국가가 여전히 전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전에는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에서 현재는 “어떻게 하면 중국이 세계의 영도적 국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중국민족주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났다.<sup>20)</sup> 당대 중국민족주의는 중국의 ‘자신감’과 ‘굴욕감’이 상호영향을 미치며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1)</sup>

둘째는 중국전통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5.4시기의 중국민족주의는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인정하였지만 전통문화를 개조하여 중국을 개혁하길 바랐다. 그들은 중국을 개조하는 실천 과정에서 서구세계의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중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예로 들면 당시 유학(儒學)의 학설은 민족주의의 강렬한 비판을 받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중국민족주의는 경제적 성취로 생겨난 자신감을 기초로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지탱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 시기 중국민족주의는 유학의 학설을 전통 문화의 자원으로 삼아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셋째는 국가권위와 현 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20세기 초기의 중국민족주의는 청말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5.4운동 시기 중국민족주의는 기존의 정치권위와 체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혁명적 태도를 취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어난 중국민족주의는 오히려 중국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권위주의적 정치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중국민족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초기 정치와 사회적 변혁을 외쳤던 중국민족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22)</sup>

결론적으로 과거 중국의 민족주의는 서구세계의 국가들과 왕래 및 충돌 속에서 피동적으로 생성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서구의 민족주의가 중국에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통중국의 ‘문화주의’ 속에 내재하고 있는 ‘종족사상’(種族思想)도 현대 중국민족주의 생성 및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중국민족주의에서 그 현상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20) 吳國光, “中國民族主義的歷史變遷: 五四時期與90年代對比”, 林佳龍 鄭永年 編, 『民族主義與兩岸關係』, 타이베이: 新自然主義출판사, 2001, p.329.

21) 王小東, “當代中國民族主義論”, 베이징: 『戰略与管理』, 제 5기, 2000, p.75.

22) 吳國光, 앞의 책, p.330.

## 2. 탈냉전 이후 중국민족주의 흥기

중국민족주의는 시대 변화의 산물로서 개혁개방 이후 전 지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며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냉전의 종결로 야기된 국제환경의 변화,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쌓인 국내의 모순과 문제점, 국제사회 및 국내에서 발생한 위기와 압력 등으로 중국은 갈수록 민족주의에 호소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민족주의는 국제사회 및 국내 환경에 대한 대응 혹은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도 자연히 국제 및 국내 모든 측면에 미치고 있다.<sup>23)</sup>

중국민족주의 흥기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국제 및 국내 환경의 변화에 있으며 주로 국제 요인에 치중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과 국가전략의 이익 조정을 위한 선택 및 종합 국력의 증장(增長)과 서구국가의 압박 간의 모순을 관심의 초점으로 삼는다. 국제적으로 중국이 '지역강대국'에서 '세계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치체도가 서구의 주요국가와 상이(相異)하고 세계자원의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서구세계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장기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중국인은 확신한다. 이렇듯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중국에 대한 외부세계의 '압박감'이 동시에 상존하면서 중국민족주의는 생성 발전되고 있다.<sup>24)</sup>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구국가는 머나먼 '모방의 대상'에서 '현실적 경쟁자'로 변하였고 '이익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굴욕의 역사와 장기간 빈곤으로 억눌렸던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도 소생(甦生)하였기 때문에 중국민족주의는 다시 흥기하였다.<sup>25)</sup> 아울러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이루며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세계질서는 여전히 서구세계가 주도하고 있는 현실도 1990년대 이후 중국민족주의가 흥기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즉 과거 전통적 정치체제나 지식에 대한 회고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자체의 전환과 국제 정치·경제체제의 전환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본다.<sup>26)</sup>

국내 요인은 주로 중국정부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권위 및 정당성을 재건(再建)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중국민족주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붕괴된 후 그 이데올로기적 공백 상태를 메우고, 중국공산당 정권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합법성 및 정당성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애국주의 혹은 민족주의를 꾸준히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중국민족주의는 민족정체성의 강렬한 요구로 그 정서가 고조된 것이 아니라, 민족정체성의 심각한 '위기'로 인해 중국공산당 및 중국정부가 민족주의 기치를 높게 드는 계기가 되었다.<sup>27)</sup> 중국민족주의는 '국가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서 국가가 구축한 민족

23) 특히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민족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참고: Alle S. Whiting,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fter Deng", *The China Quarterly*, No. 142, 1995, p.291.

24) 王小東, 앞의 책, p.73-75.

25) 孫立平, "匯入世界主流文明", 상하이: 『東方』, 제1기, 1996.

26) 吳國光, 앞의 책, p.317.

27) 임규섭, "장쩌민(江澤民)시대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의 재건", 경기: 『아태연구』, 제13권 1호, 2006, p.35-36.

국가관이며, 영토 내에서 민족정체성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정부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위와 정당성을 공고히 하였다.

### 3. 냉전 후 중국민족주의 특징

탈냉전 이후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이데올로기가 정권의 정당성 및 합법성 기능을 점점 상실 하면서 중국의 정치체제도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정부는 일차적으로 민족주의를 운용하여 국가 내부의 통합과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 등 서구세계의 중국에 대한 인권, 민주 등 압박 및 그 후 미국 등 서구세계 국가와 발생한 일련의 사건<sup>28)</sup>을 계기로 중국내에서는 ‘저항적 민족주의 담론’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의 지식인들은 1980년대 자기비하적인 인종주의에서 벗어나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거세지는 외부세계의 압박과 도전에 직면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민족주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공감하게 되었다.<sup>29)</sup> 이렇듯 1990년대 이후 중국민족주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크게 4가지 특징을 담고 있다.

#### (1) 관방민족주의와 민간민족주의

당대 중국민족주의는 ‘관방민족주의’와 ‘민간민족주의’ 양측의 논지와 관계를 알아야 그 내용 및 특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sup>30)</sup> 관방민족주의 담론은 ‘애국주의’ 관념을 주입하는데 편중되어 있으며 비교적 ‘이성적 요인’을 지니고 있어서 애국주의를 자극하면서도 과도하게 격렬한 민간민족주의를 억제하기도 한다. 관방민족주의 담론은 주로 애국주의 실시강령(實施綱要) 및 지도자의 언론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민간민족주의 담론은 때때로 ‘정서적 반응’으로 ‘비이성적 요인’을 담고 있으며 중국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러한 정서는 주로 역사적으로 ‘강대국 정서’와 ‘피해자적 심리상태’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이 두 종의 정서는 중국인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면서 중국민족주의가 탄생하게 된 기억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관방민족주의와 민간민족주의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관방민족주의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민족주의 담론이 관방민족주의 담론을 점점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sup>31)</sup>

28)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3년 베이징올림픽 개최권 획득 실패, 1996년 양안 해협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었을 때 미국항공모함의 양안 해협 순항(巡航)사건, 1999년 베오그라드의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 2001년 미국정찰기와 중국전투기의 공중 충돌 사건 및 2005년 4월 중국 각지에서 일어난 ‘반일시위’ 등이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전국적으로 확대 고조되었다.

29) 최연식, “탈냉전기 중국의 민족주의와 동북아질서”, 서울: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4집 1호, 2004, p.250.

30) 鄭永年, “民族主義, 全球主義和中國的國際關係”; 林佳龍 鄭永年편, 『民族主義與兩岸關係』, 타이베이: 新自然主義출판사, 2001, p.433-434.

1990년대 이후 중국정부의 애국주의는 국제 및 국내적으로 직면한 위기의 반응으로, 정부가 만들어낸 애국주의는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메우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1990년대 초기 중국정부가 발기(發起)한 애국주의 교육운동은 이후 중국민족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촉매제가 된다. 중국의 민간민족주의도 중국정부의 애국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정부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민간민족주의 정서가 과도할 때는 오히려 ‘불안정 요인’으로 변하여 정부의 권위와 이익에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민간민족주의는 대중매체, 지식인의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민간민족주의는 과거 역사적 강대국 정서를 반영하였으며 중국 민간사회에 긍정적 민족정서를 가져와서 중국인의 민족적 자신감이 점점 상승하게 하는 효과도 나왔다. 그 결과 중국의 국가이익이나 민족적 가치(價値)에 관련된 의제에 직면해서 중국인은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응집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 중국의 민간민족주의 정서는 역사 속에 남아있는 ‘피해자적 심리상태’를 반영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불평등 대우를 받았을 때 민간민족주의는 상당히 격렬하고 격양된 정서반응을 보였으며, 이런 격양된 민족주의 정서는 중국정부의 통치정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려(憂慮)를 낳기도 했다.<sup>32)</sup>

중국민족주의 발전 과정에서 관방민족주의는 주로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와 서로 결합되어 중국의 부상을 추진하는 동력원이 되었다. 민간민족주의는 ‘관방’ 입장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소극적 측면도 있지만, 또한 주동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성과를 배경으로 민족적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발전과 민족적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민간민족주의’는 과거와 다른 면모를 보이면서, 민간민족주의는 더 이상 단순하게 관방 입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만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인은 ‘중국국가’ 혹은 ‘중국공산당’ 어느 쪽을 중심으로 응집하여야 하는가?”하는 향후 중국민족주의 발전의 근본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 (2) 국가민족주의와 문화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 하에서 형성된 산물이다. 이러한 위기는 근대이후 서구의 문화적 충격을 받은 중국문화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동시에 중국정부의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 나타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및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민족정체성의 위기는 이데올로기 정당성의 위기이다. 사실상 중국정부는 매번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 위기를 해결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시기에는 ‘계급민족주의’로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차별화를 걸으면서 배타적이고 혁명적인 생산 동원을 진행하였으며, 덩샤오핑(鄧小平)시기에는 ‘국가민족주의’에 편중되면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반패권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자본주의 세계체제와의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였다. 그 후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시기에는 주로 ‘국가민족주의’와 ‘문화민족주의’를 잘 활용하여, 세계화의 충격 하에서 생성된 중국인의 민족정체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sup>33)</sup>

31) Peter Hays Gries, 앞의 책, p.49-50.

32) 楊永平, 『冷戰後中共對日外交政策的民族主義因素』, 國立政治大學東亞研究所 석사논문, 2007, p.46-48.

이에 대해서 샤오공친(蕭功秦)은 “이는 당대 중국민족주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문화상의 보수주의와 복고(復古)주의를 의미하며, 현 단계에서 문화보수주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인은 문화정체성을 강조하고 ‘전통’으로의 회귀를 통해서 중국이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도 자신의 주체를 잃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sup>34)</sup>라고 설명하였다.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국가민족주의’와 ‘문화민족주의’ 간에 상호작용하며 중국민족주의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 중 문화민족주의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근 베이징올림픽을 전·후 하여 나타난 ‘혐한증(嫌韓症)’의 핵심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유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민족주의 특성이 강한’ 중국민족주의 열정이 혐한증을 일으키는 실례(實例)이기도 하다.

### (3) 희생자적 혹은 저항적 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는 일종의 “서구세계에 당한 피해의식에 의한 심리적 콤플렉스”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콤플렉스는 과거 백여 년간 중국이 서구의 강대국과 충돌할 때 남겨진 ‘고통스런 기억’을 근거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은 “과거에 왜 서구세계의 도전과 충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가?”를 연구 분석하지 않고, 중화민족의 체면이 손상당한 굴욕의 늪에 깊이 빠져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땅에 떨어진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고 싶어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sup>35)</sup> 그럼으로 중국의 대외관계를 연구할 때 반드시 ‘국가’의 의의를 다시금 되새겨 봐야하며, 최소한 중국 국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국가의 ‘감정 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국가는 중국인이 소위 말하는 “서구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의의는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것이다.<sup>36)</sup>

서구의 제국주의에 대응하여 나타난 중국민족주의는 문화민족주의 분위기하에서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방지하는 증오의 심리를 표현하는 ‘탈식민지주의’(脫植民主義)적 논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민족주의는 ‘대중화된 복합체’로서 ‘정감적 연연’(戀戀) 및 ‘문화귀속감’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복합체가 외래의 위협을 받았을 때 강렬한 애국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사실상 1990년대 이후 중국민족주의는 그 정서를 자극한 외래위협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의 표현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일어난 ‘궁지’ 및 ‘자부심’과 ‘국치’(國恥)의 회상이 동시에 공존하며 자극하여 생성한 복합체이다. 이러한 민족적 정감은 오락성이 강한 대중문화의 최고의 소재가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새로 일어난 대중문화들로, 예를 들면 체육활동, 테마파크, 민족축전 등 모두 중국민족주의가 전례 없이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게 되었다.

33) 黃寬裕, 『論中國大陸愛國主義教育; 後殖民與民族主義的觀點』, 國立政治大學東亞研究所 박사논문, 2007, p.140.

34) ———, “中國民族主義何去何從”, [http://news.bbc.co.uk/go/pr/fr/-/chinese/trad/hi/newsid\\_7240000/newsid\\_7244700/7244777.stm](http://news.bbc.co.uk/go/pr/fr/-/chinese/trad/hi/newsid_7240000/newsid_7244700/7244777.stm)

35) Yahuda, Michael, “China’s Search for a Global Role”, *Current History*, Sep, 1999, p.268.

36) 石之瑜, “回應中國: 反國家論述對東方主義的歡迎還拒-以周恩來為例”, 타이베이: 『共黨問題研究』, 제26권12기, 2000, p.7.

#### (4) 반응형 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는 서구의 민족주의와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서구의 민족주의와 비교했을 때 중국민족주의는 ‘반응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민족주의는 자생(自生)적이기 보다는 외부의 자극 및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결과적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탈냉전 시기 중국민족주의 흥기의 원인이 국가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현존하는 국제관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중국인의 자신감의 표현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압력 및 자극<sup>37)</sup>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기도 하다.<sup>38)</sup>

일종의 ‘반응형 민족주의’인 중국민족주의는 그 파급효과와 영향력, 즉 민족 내부의 엘리트와 민중의 동원 정도 및 민족정서를 표출해내는 강도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가하는 위협과 충격의 강도 및 사람들이 느끼는 민족의 생존조건의 악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반응은 주로 ‘특정한 구체적 사건 및 이슈’와 관련을 맺고 있지 추상적인 이념 및 교의(敎義)와는 상관없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외부의 충격 및 위협이 사라지면 그러한 반응도 함께 상응하여 약화된다.<sup>39)</sup>

그러나 이전에 자기 보호적이고 자아 긍정적 발전을 추구하던 중국민족주의가 1990년대 이후 대외 지향적이고 자기 확신을 표현하는 민족주의로 방향을 바꾸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개혁은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으며, 방대한 경제규모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그 경제성격은 ‘자본주의의 대외지향적인 침략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중국은 민족주의이론으로서 이러한 자본주의식 대외지향성 및 확장성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IV. 베이징 올림픽의 정치적 함의

### 1. 중국에서 스포츠와 정치 관계

세계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은 국가는 없으며 국제적 스포츠 행사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들은 표면적으로 스포츠는 ‘비정치적’ 문화 활동이라 강조하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강조해왔다.<sup>40)</sup> 중국의 역대 지도자 및 스포츠 관련 정부고위인사들은 스포츠 발전을 강대국화하고 국가

37) 1992년 초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서 중국이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한 이후, 국제사회에 서는 중국궤기와 중국위협론의 담론이 확산되면서, 중국민족주의는 ‘일정 부분’ 이 두 종의 쟁론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된 측면도 있다.

38) 鄭永年, “中國的民族主義和民主政治”; 林佳龍 鄭永年, 『民族主義與兩岸關係』, 타이베이: 新自然主義 출판사, 2001, p.381-382.

39) 위와 같은 이유로, 중국민족주의는 대외 지향적이고 확장적인 내재적 문화충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기는 하다. 참고: 蕭功秦, 明報(홍콩), 1997년 2월 5일.

를 방위하는 주요 수단으로 여겼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 스포츠를 더 이상 단순한 운동으로만 삼지 않았다. 신중국 건국 초기부터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라는 인식하에서 ‘애국체육’ 사상을 기초로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일환으로 대중체육을 진흥시키고, 이를 통해 스포츠 외교를 전개해왔다. 초기에는 외교적 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지만, 후에는 위상 제고에 힘입어 스포츠를 다각적인 외교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중국의 스포츠 외교는 ‘화해의 상징’을 활용하고자 하였지만, 개혁개방 이후에는 ‘외교적 승인’ 및 ‘국위선양의 상징’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 관리들은 정치적 고령을 바탕으로 국가 스포츠정책의 최대목표가 올림픽의 성공이며, 올림픽이야말로 국가의 실질적인 스포츠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공언하였다.<sup>41)</sup>

중국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후, 중국의 국제사회로의 편입과 그 자격에 대해서 전 세계인이 신뢰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이 국가적 발전을 이루며 ‘개발도상국가’에서 비교적 발달한 국가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총체적 국가발전은 올림픽 개최를 유리하게 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중국의 정치체도와 중국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긍정한 것이라고 중국인들은 확신하였다. 실제로 중국공산당도 “올림픽 유치의 성공은 중국민족을 단결하고 대만 및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인을 포함한 전 중화민족의 ‘민족적 응집력’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조만간에 완성할 수 있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자평하였다.<sup>42)</sup>

이러한 전제하에서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권의 획득을 통해서 그 정권의 합법성과 정당성은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sup>43)</sup> 민족주의 열정을 이용하여 중국공산당 정권의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sup>44)</sup> 즉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에서 전 국민의 스포츠가 되었으며, 그 중 민족주의는 전 중국인을 응집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특히 베이징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후진타오주석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및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등 정권의 정당성과 안정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인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민족적 자긍심을 확신하고 애국심을 향상하여 중국 정치의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는 중국인의 애국심과 해외교포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구심력이 되었다. 특히 근대 이후 서구세계 및 일본 등 국가에 침략 받은 굴욕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중국 정부 및 중국인들은 중국이 강성해지고 중화문화의 부흥으로 세계 강대국들과 대등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베이징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는 중국의 스포츠 활동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정치력도 스포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0) 양순창, 앞의 책, p.340.

41) 위의 책, p.336-338.

42) 路得, “北京奧運：中國青年長久受益的三大遺產”, 베이징: 『中國青年研究』, 제 5권, 2001, p.14.

43) Bay Fang, “China scores for 2008 Olympic Gold: Beijing”, *U.S. News & World Report Washington*, Vol. 131, No. 3, 2001, p.32.

44) 宋國誠, “中共主辦2008年奧運對其綜合國力與兩岸關係的影響”, 타이베이: 『共黨問題研究』, 제27권 8기, 2001, p.3.

## 2. 베이징올림픽과 중국민족주의

### (1) 중국민족주의 역할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의 부상을 상징하고 있으며 중국이 지난 30여 년간 추진한 개혁개방의 성과를 전 세계에 전시하는 가장 좋은 무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인을 중국으로 불러 모아 중국을 이해시키고 받아들여지게 하였으며, 중국은 더욱 세계로 향해 나아가 세계와 일체가 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삼았다. 베이징올림픽의 최대 목적은 중국이 과거 서구세계의 억압에서 벗어나 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의 국가 지위를 상승시키며 중국민족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를 얼마두지 않고 일어난 티베트 사태 및 성황봉송 반대시위 등으로 크게 촉발된 중국민족주의는 국제사회의 쟁점이 되었다. 이렇게 베이징올림픽이 불러일으킨 중국민족주의는 세계 각국의 정부, 매스미디어, 기업 및 각계인사에 대한 항의 시위로 확산되면서, 1989년 6.4천안문 사태이후 중국의 이미지에 가장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sup>45)</sup> 원래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려 했는데 오히려 서구세계에 대한 비판의 장소로 변질되는 경향도 보였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민간의 ‘비이성적 민족주의’의 흥기이다.<sup>46)</sup>

서구세계의 중국에 대한 비판에 자극받아 일어난 중국인들의 반서구 시위가 성화 봉송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유학생 폭력 시위를 계기로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중화주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애국주의 열기의 중심에는 1980년 이후 태어난 ‘빠링후(80後)’세대<sup>47)</sup>이며, 이들이 표현해 낸 비이성적 애국주의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었지만, 그 중 서구 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 패배감 및 피해의식이 핵심요인이 된다.<sup>48)</sup> 특히 중국이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 서구 국가들은 올림픽을 이유로 중국에게 인권, 자유, 민주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인은 이를 서구세계의 ‘내정 간섭’이라고 항의하며 격렬한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비이성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중국민족주의를 발기한 것 같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는 중국정부의 방종과 조종 하에서 이루어 졌다.

배타적 민족감정을 표현한 이성 잃은 중국의 애국주의에 대해서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자긍심은 늘어났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유주의적 교육을 받지 못한 불균형이 초

45) 중국 정부는 쓰촨성(四川省) 강진과 티베트(西藏) 독립 시위 등으로 촉발된 지나친 중국민족주의가 반정부 시위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46) 이성적 민족주의는 민주와 자유의 이념 및 과정을 통해서 한 국가 국민의 공동체 의식 및 정체성을 응집한다. 이는 서구 민주국가가 강성해진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은 민족주의를 최초로 중국에 유입하면서 민주와 자유의 이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지 반제국주의 및 반식민주의 사상만을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이렇게 근대 이후 출현한 중국민족주의 전통은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聯合報(타이베이), 2008년 4월 28일.

47) 이들은 고성장 환경 속에 자라서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특히 강한 세대로 지칭된다. 이들은 외국을 향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만 중국 내 체제에 대해서는 ‘순응적’이어서,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티베트 사태에 대한 당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다.

48) 한국일보(서울), 2008년 5월 9일.

래했다고 분석한다.<sup>49)</sup> 이번의 중국민족주의는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는 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자신감과 서구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는 민족주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스포츠의 시합장인 베이징올림픽을 통해서 중국민족주의를 더욱 자극하는 효과도 만들었다.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의 통합과 정권의 정당성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베이징올림픽과 민족주의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인과 일반 국민들을 하나로 응집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정권의 합법성을 강화하였다.

### (3) 당대 중국민족주의 특징

중국민족주의는 공통적으로 중국이 20세기 초에 겪었던 오욕과 수난의 역사를 극복하고 강한 중국을 실현하려는 열망에 기초하고 있다.<sup>50)</sup> 1990년대 이래 중국정부는 ‘국가민족주의’를 계속 견지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중화민족을 대변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국가통일 및 주권독립을 실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더욱 높은 지위를 쟁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의 제약 하에서 중국정부는 ‘문화민족주의’를 운용하기 시작하여 중국의 전통문화 혹은 문명으로서의 회귀(回歸)를 강조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중국인을 응집하였다.

2000년대 이후 특히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표출된 중국민족주의는 부상에 따른 ‘자신감’과 아울러 민족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력한 민족단결을 요구하는 정서로 흘렀다. 사실상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국가민족주의’를 기본 틀로 하고 있으며 ‘문화민족주의’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중국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결과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중국민족주의도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향후 ‘자신감이 넘치는 민족주의’를 기초로 한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발전을 시도할 것이며, 중국민족주의는 자신감을 기초로 ‘대외 지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최고조에 이른 중국민족주의는 그 형태 및 방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덩샤오핑시기 이후부터 중국에서는 국가민족주의와 문화민족주의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전하였으며, 과거에는 국가민족주의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장쩌민 및 후진타오시기부터는 문화민족주의 역량이 강화되기 시작하더니,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문화민족주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중국민족주의는 관방민족주의와 민간민족주의가 상호 공존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에는 관방민족주의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냉전 이후 중국민족주의는 국제 및 국내환경의 여러 위기요인에 의해 다시 흥기하였으며, 비록 관방의 애국주의 담론이 중국민족주의 내용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지만, 민족주의가 민간부문에 더욱 깊게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민족주의 정서는 관방의 애국주의와 다른 특징을 보였다. 관방민족주의는 주로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와 결합하여 중국이 부상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민간민족주의

49) 위의 글.

50) 최연식, 앞의 글, p.251.

는 정부입장에 대한 호응 혹은 반응 외에도 경제발전 및 민족적 자신감 등 주동적 측면도 함께 나타냈다. 경제발전과 민족적 자신감을 추진력으로 한 민간민족주의는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 되면서, 민간민족주의는 단순히 정부입장에 대한 긍정적 호응만을 보이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민간민족주의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민간민족주의 역할 및 그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다.

셋째는 중국민족주의 구조의 변화 및 그 기능의 확산은 중국민족주의를 조성하는 주요 메커니즘의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즉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의 보급 확산을 통해서 중국민족주의는 더욱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민족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생성(生成) 발전하였으며, 넷째는 인터넷을 통한 민간민족주의 확산 및 발전은 주로 ‘젊은 층’<sup>51)</sup>이 주체가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나타난 중국민족주의는 ‘비이성적’ 성격도 보였다.

다섯 번째는 베이징올림픽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서구세계의 중국문제<sup>52)</sup>에 대한 질타(叱咤)가 클수록 강해지는 중국의 애국주의 혹은 민족주의를 보아도,<sup>53)</sup> 중국민족주의는 외부세계의 자극에 대한 ‘반응적 성격’이 특히 강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에서 1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중국인의 위대함을 알리려는 노력에서도 그 반응성을 볼 수 있었다. 중국민족주의는 외부세계가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반작용하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중국민족주의의 반응적 성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정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상승하고 있지만, 그 속에 ‘반서구’ 정서도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섯 번째는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보여준 중국문화와 전통의 우수성의 긍정적 효과, 개혁개방의 성취에서 나타난 자신감 및 베이징올림픽 1위로 스포츠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자부심 등 중국민족주의는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구조적 변화를 이루면서 대외지향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곱 번째는 이에 중국민족주의가 ‘팽창적’ 민족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로 나아갈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민족주의 자체가 지니고 있는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sup>54)</sup> 중국의 애국주의 혹은 민족주의는 과거 개혁개방시기 이전에 비해 개방적이고 실용주의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국중심적인 ‘폐쇄적 민족주의’ 성격도 상존하고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성공적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새로이 강화된 중국민족주의 열풍은 중국사회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모순을 충분히 감출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였으며, 애국심을 기반으로

51) 여기서 젊은 층이란 중국에서 소위 빠링호우(80年代後), 지우링호우(90年代後)라고 불리는 세대를 지칭한다.

52) 티베트 및 신강위구르(新疆)의 소수민족 및 인권, 민주 등.

53) 중국에서 소수민족문제는 안보적,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혁개방 후 지속되어 온 중국정부의 애국주의적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이라는 국정목표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외부세계가 중국 소수민족문제에 대해 질타할 때마다 강렬한 반응을 보인다.

54) 김희교, “중국 애국주의의 실체: 신중화주의, 중화패권주의, 민족주의”, 서울: 『역사비평』, 5호, 2006, p.310-311.

한 국가민족주의 즉 애국주의를 통하여 중국내 소수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권위 및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이루었다.

당대 중국민족주의는 국제 및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흥기하였으며, 이 두 요인은 중국의 '위기 상황'을 조성하여 정치이념 혹은 이데올로기, 경제이익 및 전통문화가 민족주의와 상호 작용하며 결합하여 사람들의 '정치적 민족의식'을 형성하였다. 오늘날 중국민족주의는 여러 요소들의 복합체로서 정치민족주의, 한민족(漢民族)정체성 및 문화주의적 자부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감 요인은 모두 과거 각 시기의 중국 정권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혹은 새로이 묘사되고 창조되었다.<sup>55)</sup> 국제 및 국내의 '위기 요인'에 의해서 흥기한 중국민족주의는 '피동적 요인' 즉 '반응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 및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민족적 자신감이 강화되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모두 중국민족주의 흥기의 '주동적 요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국민족주의는 내용, 형식 및 운영방식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나타난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은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를 '새로운 중화주의'의 부흥이라고도 명명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민족주의는 새로운 구조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

## V. 결 론

중국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역사와 당시 정치상황을 보면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안정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사회주의 이념과는 모순되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호소하여 정권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였다. 올림픽은 국가 연주 및 국기 게양 등 국가의 대외적 상징이 뚜렷한 의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국가 단위의 민족적 정체성을 증강하고 사람들의 애국주의 의식을 자극하여 민족을 강하게 응집한다. 이러한 응집력은 개발도상국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우세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현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속발전을 통해서만 선진국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고속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내부의 자아 갱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 중에 서로 다른 사회공동체 간의 모순과 충돌이 생기며 사회적 동란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이런 시점에 도달한 중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의 '발전'과 '안정'으로서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이 두 가치를 모두 체현했다고 본다. 사실상 올림픽은 그 특유의 형식으로 인해 정치 및 경제적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국제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국가와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과시할 수 있으며, 올림픽을 개최하고 올림

55) James Townsend, "Chinese Nationalism"; in Jonathan Unger, *Chinese Nationalism*, (N.Y.: M.E. Sharpe), 1996, p.60-62.

픽에 참석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애국주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의 개최권 획득 및 성공적인 개최는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정(確定)하여 국가행위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중국정부도 전 국민을 동원하여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유도하였으며, 중국선수들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조직하여 화려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중국인은 민족의 자부심을 증강하고 민족적 정신을 분발시켜 각 종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인을 하나로 녹여 응집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으며,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민족주의를 활용하여 베이징올림픽을 정점으로 하나로 묶어 동아시아 지역강국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발돋움하려 노력하였다.

베이징올림픽 담론 및 성공적 개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표현한 것이며 이는 중국민족주의의 형성 및 구축에 많은 소재를 제공하기도 했다.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신감과 응집력을 향상 강화하였고 중국 역사 속에 깊이 묻혀있던 ‘강국의 정서’를 불러일으켰으며, 중국의 부상 및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민족주의의 기본 틀이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국가를 구할 수 있을까?”에서 현재는 “어떻게 하면 중국이 세계의 ‘영도적 국가’가 될 수 있을까?”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중국정부는 영광된 베이징올림픽의 성과를 활용하여 중국인의 역량을 응집하고 중국이 부상한 거대한 대국으로서 세계화된 세계체계 속에서 더욱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베이징올림픽과 중국민족주의는 상호 변증적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왔다. 중국민족주의는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민들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인의 자신감과 응집력을 강화하여 중국민족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현재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고 있는데, 이는 향후에도 중국민족주의가 중화민족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을 의미한다.

## 참 고 문 헌

- 장효민, "스포츠와 내셔널리즘: 월드컵축구경기에서의 한일 네티즌의 사례", 서울: 『한국 스포츠사회학지회』, 제 21권 제1호, 2008.
- 김방출, "스포츠 민족주의의 재인식: 전지구화, 스포츠, 기업 민족주의", 서울: 『체육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7.
- 김희교, "중국 애국주의의 실체: 신중화주의, 중화패권주의, 민족주의", 서울: 『역사비평』, 제5호, 2006.

- 박정근, 문익수, 전진효, 『현대사회와 스포츠』, 서울: 21세기 교육사, 1999.
- 양순창, "중국 스포츠 외교의 전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한정치학회보』, 14집 3호, 2007.
- 오일환, 전병곤,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의 의미와 전망", 서울: 『중국학연구』, 제21집, 2001.
- 임규섭, "장쩌민(江澤民)시대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의 재건", 경기: 『아태연구』, 13권 1호, 2006.
- 조문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슬로건의 중화민족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 31호, 2007.
- 최연식, "탈냉전기 중국의 민족주의와 동북아질서", 서울: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4집 1호, 2004.
- 房宁 『王炳權, 民族主義思潮』, 베이징: 高等教育출판사, 2004.
- 路得, "北京奧運: 中國青年長久受益的三大遺產", 베이징: 『中國青年研究』, 제 5권, 2001.
- 孫立平, "匯入世界主流文明", 상하이: 東方, 제1기, 1996.
- 王小東, "當代中國民族主義論", 베이징: 『戰略与管理』 제 5기, 2000.
- 徐迅, 『民族主義』, 베이징: 中國社會科學출판사, 2005.
- 鄭永年, 『中國民族主義的復興: 民族國家向何去』, 홍콩: 三聯출판사, 1998.
- 朱益宜, "民族主義與1949年後中國對外關係", 홍콩: 『香港社會科學學報』, No. 18, 2000년.
- 黃寬裕, 『論中國大陸愛國主義教育; 後殖民與民族主義的觀點』, 타이베이: 國立政治大學東亞研究所 박사논문, 2007.
- 李英明, 『中國: 向鄧後時代轉折』, 타이베이: 生智출판사, 1999.
- 林佳龍 鄭永年 編, 『民族主義與兩岸關係』, 타이베이: 新自然主義출판사, 2001.
- 石之瑜, "回應中國: 反國家論述對東方主義的欲迎還拒-以周恩來爲例", 타이베이: 『共黨問題研究』, 제26권12기, 2000.
- 宋國誠, "中共主辦2008年奧運對其綜合國力與兩岸關係的影響", 타이베이: 『共黨問題研究』, 제27권 제8기, 2001.
- 楊永平, "冷戰後中共對日外交政策的民族主義因素", 타이베이: 國立政治大學東亞研究所 석사논문, 2007.
- 葉韋君, 『從雅典到北京: 2008年北京奧運文化理念分析』, 타이베이: 國立政治大學東亞所 석사논문, 2004.
- Alle S. Whiting,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fter Deng", *The China Quarterly*, No. 142, 1995.
- Anthony D. Smith, *Nations and Nationalism A Global Era*: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이재석 옮김), 서울: 남지, 1997.

- Bay Fang, "China scores for 2008 Olympic Gold: Beijing", *U.S. News & World Report Washington*, Vol. 131, No. 3, 2001.
-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想像의 공동體: 民族主義의起源與散布』(吳叡人 역), 타이베이: 時報 출판사, 1999년.
- Jonathan Unger, *Chinese Nationalism*, (N.Y.: M.E. Sharpe), 1996.
- J.W. Loy & G.S. Kenyon(eds), *Sport,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Macmillan), 1969.
- Nixon, H. L. & Frey, J.H., *A Sociology of Sport*, (Ba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6.
- Peter Hays Gries,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Lucian W. Pye, *The Spirit of Chinese Politics*, New Edition, (Cambridge M. A.: Havard University Press) 1992.
- W. M. Leonard II,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s*, (N.Y.: Macmillan Co.), 1989.
- Yahuda, Michael, "China's Search for al Global Role", *Current History*, Sep, 1999.

한국일보(서울)

聯合報(타이베이)

明報(홍콩)

Abstract

## Chinese Nationalism expressed around Beijing Olympic

Lim, Kyoo Seob\*

Since it is an indispensabl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nd politics in China, policies related with sports are closely related with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s of the nation. In addition, as sport systems around the central government are formed, they are operated around organizations and systems which are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relationships between Beijing Olympic and development of Chinese nationalism under operation of national ideology of the Chinese government. Chinese nationalism is considered as a major factor for holding Beijing Olympic successfully and effect of Beijing Olympic on the development of Chinese nationalism is also analyzed. Especially it is examined how contents and characters of Chinese nationalism changed before and after a successful holding of Beijing Olympic.

Even though Chinese nationalism is largely noted again thank to Beijing Olympic, it is not temporary phenomena but it lies on a consecutive line of nationalism which appeared due to confidence of the Chinese and in its response to the western world since the 1990s. A successful holding of Beijing Olympic strengthened both national confidence and cohesive power of the Chinese, and invoked emotion of a strong country which had been hidden in the history of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utilized culture-nationalism to the maximum with a fundamental frame of state-nationalism. Consequently some change occurred in respect of contents and types of Chinese nationalism, and it acted as opportunity that the key point of Chinese nationalism is transformed from "How can we save China?" in the past to "How can China become as a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at present. Both Beijing Olympic and Chinese nationalism have developed in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 논문접수일 : 2008 10월 1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1월 20일

---

\* Research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